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2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성명서

대한철인3종협회의 미성년 선수 성폭력 및 불법촬영 의혹 은폐·축소를 규탄한다!

01

시민단체, 대한철인3종협회 미성년 선수 성폭력·불법촬영 은폐·축소 의혹 규탄

한국NGO신문 정성민 기자

02

“스케이트 날집으로 300대” 피겨 학대 피해자 더 있다

설록 조아영 기자

03

"10대 댄 그릴 수도" 성폭행 가해자 두둔...스포츠공정위 회의록 '충격'

JTBC 배승주 기자

04

문체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조치 추진

한국일보 강은영 기자

05

축구 K7 대회 경기 중 나온 후두부 가격...폭력으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 '빨간불'

스포츠월드 권영준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의 미성년 선수 성폭력 및 불법촬영 의혹 은폐·축소를 규탄한다!

- 故 최숙현 선수를 기억하며, 2차 피해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

올해 초,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한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은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선배의 반복적 호출과 부적절한 상황이 이어졌고, 성폭력 및 불법촬영 정황과 강요·통제에의 악용 의혹까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안은 개별 선수의 일탈을 넘어, 협회의 관리·감독 및 보고·대응 절차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과 낙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부 지도자와 협회의 관련자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행실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협회가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피해자 보호 의무와 성인지적 절차 기준을 외면한 것으로, 향후 모든 절차는 피해자 중심·증거보전 우선 원칙으로 즉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협회 내부 대응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증거보전에 역행하는 삭제 지시 정황과, ‘합의’로 규정한 축소 보고 의혹은 협회의 보고체계와 지휘라인 전반의 실패입니다. 이는 외부 독립 기구에 의한 특별감사·사실조사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직무정지·직무 배제 등 선제적 보호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기록 전면 보존·제출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훈련을 관리 감독한 지도자들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사건 해결을 위해 찾아온 협회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나서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합의된 성관계로 규정했으며, 그 내용 그대로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축소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에 달려온 아버지에게조차 그 피해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물의에 대한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고 협회에 통지했음에도, 협회는 성급히 스포츠공정 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출전정지 3개월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은 공정위 심의에서 피해자의 고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없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라며, 황급히 징계를 의결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협회는 가해자를 두둔하며 그들이 운동을 못하게 될까 걱정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물으며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피해 호소 이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그 황급한 결론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월 26일, 고 최숙현 선수의 5주기 기일이었습니다. 분골쇄신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지난 5년간 대한철인3종협회는 직장내 갑질, 횡령, 배임, 그리고 성폭력 사건 은폐라는 최악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부채감이 없는 것입니까,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능력 그 자체입니까? 온갖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진 맹호승 회장, 성폭력 사건을 은폐를 주도한 이성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스포츠공정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이 불거진 그날 밤, 사건을 보고받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거짓 보고에 속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의 정황은 파악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길 바랍니다. 대한체육회는 훈련중단,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접수 이외에 그 어떤 구제 행위도 없었다는 것은 두 기관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피해자들은 두 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단, 철인3종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적 구조 속에서 은폐되고, 거대한 공모 체계 속에서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부조리, 그리고 사유화된 조직을 계속 지배하려는 욕망들이 뒤섞여 최악의 스포츠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모든 종목이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 대개혁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또 더는 이런 사건이 체육계를 뒤덮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각성하기 바랍니다.

국가는 생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일상과 진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엄정한 수사와 함께, 가명조서·접촉 차단·심리·의료·법률·학업/진로 지원 등 실효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5년 전 우리는 최숙현을 잃었습니다. 제2의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지자체·수사기관은 각자의 책무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핵심은 분명합니다. 협회의 처리 실패가 2차 피해를 증폭시켰고, 지금 필요한 것은 가림이 아닌 공개, 회피가 아닌 책임입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생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대책 실행하라!
- 폐쇄된 체육계 인권문제 즉각 해결하라!
- 스포츠인권 구제대책, 즉각 개선하라!
- 경찰의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 대한철인3종협회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
- 스포츠윤리센터의 무능력, 이제 지긋지긋하다. 개혁하라!
- 국회는 체육 대개혁 청문회를 즉시 개최하라!
- 이재명 정부는 체육대개혁 실행하라!

2025년 8월 27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01

시민단체, 대한철인3종협회 미성년 선수 성폭력·불법촬영 은폐·축소 의혹 규탄

한국NGO신문 정성민 기자

2025.08.27 20:03

사진=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철인3종 미성년 선수 성폭력·불법촬영 은폐·축소 의혹'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손솔 의원(손솔 의원실)

대한철인3종협회의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 참가 철인3종 중학생 선수(남)가 동료선수(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는 고소가 접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한철인3종협회의 성폭력·불법촬영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가 대한철인3종협회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속·엄정 수사, 대한철인3종협회 집행부 전원 사퇴, 국회의 체육 대개혁 청문회 개최, 정부의 체육 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이하 시민단체)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인3종 미성년 선수 성폭력·불법촬영 은폐·축소 의혹'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은 지난 1월 경찰에 접수됐다. 철인3종 중학생 대표 A군이 대한철인3종협회 주최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에서 동료 선수 B양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대한철인3종협회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 초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한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은 중학생 피해자에게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간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선배의 반복적 호출과 부적절한 상황이 이어졌고 성폭력·불법촬영 정황과 강요·통제에의 악용 의혹까지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별 선수의 일탈을 넘어 협회(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감독과 보고·대응 절차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01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피해자는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과 낙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일부 지도자와 협회의 관련자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행실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협회가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피해자 보호 의무와 성인지적 절차 기준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향후 모든 절차는 피해자 중심·증거 보전 우선 원칙으로 즉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협회 내부 대응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증거 보전에 역행하는 삭제 지시 정황과 '합의'로 규정한 축소 보고 의혹은 협회의 보고체제와 지휘라인 전반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이에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특별감사·사실조사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직무정지·직무배제 등 선제적 보호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기록 전면 보전·제출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훈련을 관리 감독한 지도자들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문제가 불거지고 사건 해결을 위해 찾아온 협회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나서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합의된 성관계로 규정했으며, 그 내용 그대로 대한 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축소 보고해 사건을 은폐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심지어 사건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조차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물의에 대한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했다"면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고 협회에 통지했음에도 협회는 성급히 스포츠공정 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열어 피해자에게 출전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협회는 공정위 심의에서 피해자의 고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없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라며 황급히 징계를 의결하고 말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01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오히려 협회는 가해자를 두둔하며 운동을 못하게 될까 걱정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물으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과연 피해자가 피해 호소 이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그 황급한 결론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철인3종협회가 변한 것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선수는 철인3종 종목에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유망주였다.

그러나 소속 팀 감독과 선배, 운동처방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와 폭언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이에 최 선수는 인권위, 대한체육회, 경찰, 언론사 등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한철인3종 협회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엄마 미안해, 그 사람들 죄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2020년 6월 26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지난 6월 26일 고 최숙현 선수의 5주기 기일이었다"며 "분골쇄신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지난 5년간 대한철인3종협회는 직장내 갑질, 횡령, 배임 그리고 성폭력 사건 은폐라는 최악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부채감이 없는 것인가,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무능력 그 자체인가"라면서 "온갖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진 (대한철인3종협회) 맹호승 회장, 성폭력 사건을 은폐를 주도한 이성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이 불거진 그날 밤 사건을 보고받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거짓 보고에 속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 성범죄의 정황이 파악됐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1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훈련 중단,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접수 이외에 어떤 구제 행위도 없었다는 것은 두 기관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피해자들은 두 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 최숙현 선수가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한국 체육계의 구조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한국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서 은폐되고, 거대한 공모체계 속에서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부조리 그리고 사유화된 조직을 계속 지배하려는 욕망들이 뒤섞여 최악의 스포츠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생존자(피해자) 보호대책 실행 △체육계 인권문제 해결 △스포츠인권 구제대책 개선 △경찰의 신속·엄정 수사 △대한철인3종협회 집행부 전원 사퇴 △스포츠윤리센터 개혁 △국회의 체육 대개혁 청문회 개최 △이재명 정부의 체육 대개혁 실행을 주문했다.

시민단체와 손 의원은 "현재 피해자는 일상과 진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5년 전 우리는 최숙현을 잃었다. 제2의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지자체·수사기관은 각자의 책무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스케이트 날집으로 300대” 피겨 학대 피해자 더 있다

셜록 조아영 기자

2025.08.29

사진=(셜록)

“그 사람은 악마였습니다.”

어린 시절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꿈꿨던 이효민(23, 여, 가명) 씨의 말이다. 효민 씨는 대구 빙상경기연맹 소속 김아영(38, 여) 코치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백한 ‘추가 피해자’다.

지난 25일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어린 시절 김 코치로부터 학대당한 고연서(24, 여, 가명) 씨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연서 씨는 김 코치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대구빙상경기연맹에 징계요구서도 제출했다.(관련기사: <‘김연아의 꿈’은 사라지고… 학대의 악몽만 남았다>)

효민 씨는 과거 김아영 코치 팀에서 함께 훈련받은 고연서 씨의 고소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 학대 트라우마 때문에 연서 씨가 아직도 힘들게 지낸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다. 이제 빙상계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연서 언니가 거짓말쟁이 취급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아영 코치가) 나쁜 사람인 걸 아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효민 씨도 김연아 선수를 동경했다. 얼음 위를 질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겨스케이팅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해, 초등학교 2학년 때 얼음 위에 첫발을 디뎠다. 2년 뒤 선수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

“취미반일 때는 김아영 코치가 정말 잘해줬어요. 예쁘고 착한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수 훈련을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10살이었던 효민 씨의 첫 선수 훈련은 ‘여름합숙’이었다. 2012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선수반 동료들과 “눈을 뜨고 감기 전까지” 훈련했다. 이때 함께 훈련한 동료가 고연서 씨였다.

여름합숙 훈련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과 빙상장을 오가면서 진행됐다. 토요일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에 훈련장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했다.

“선수들 표정이 항상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이틀 지나고 나니 저도 똑같은 표정을 짓게 됐어요.”

효민 씨 어머니가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지상 훈련은 ‘커튼’을 치고 시작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때문이었다.

“지상훈련 트레이너들에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도자들은 학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행위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이효민 어머니 사실확인서)

효민 씨는 스케이트화 날집으로 300대를 맞은 적 있다고 회상했다. 점프 하나를 실패하면 날집으로 100대를 맞았고, 하루에 300대까지 맞았다.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다. 잘못 세면 처음부터 다시. 날집이 부서지면 다른 날집으로 맞았다.

“추운 빙상장에서 얼어 있는 고무 날집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체를 맞았어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피멍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죠.”

폭행의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점프에 실패해서, 지상훈련에서 뒤처져서, 훈련 도중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단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었어요. 도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무막대기, 플라스틱 막대기, 날집, 주먹, 귀싸대기... 매일 반복됐어요.”

훈련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숙소 내 김 코치 방에 끌려가면, 비명소리와 함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효민 씨는 말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 효민 씨 증언에 따르면, 김 코치는 아이들에게 10초 안에 볼일을 보라고 지시했다. 화장실 문도 닫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옷에 실수한 날도 있었다.

학대는 얼음 위에서도 이어졌다. 효민 씨는 상의가 벌거벗겨진 여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는 민소매 속옷 한 장 걸칠 수 없었다. 김 코치는 점프에 실패하면 옷을 하나씩 벗게 했다. 이후 점프에 성공하면 김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니가 벗으니까 (점프가) 잘 되지.”

드디어 집에 가는 토요일. 저 멀리서 엄마가 효민 씨를 데리러 다가오고 있었다. 김 코치는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드는 효민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손가락 발가락 하나씩 가위로 잘라버린다.”

소름이 돋았다. 정말 그런 짓을 할 것만 같았다. 효민 씨는 반복적인 김 코치의 협박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지상훈련 장소였던 초등학교는 효민 씨가 살던 집과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가혹행위를 당할 때마다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피겨를 그만두거나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린다.”

김 코치가 효민 씨에게 늘 무서운 말만 했던 건 아니었다.

“막 때리다가도, 바로 따라와서 ‘내가 (너를) 좋아해서 이러는 알지?’, ‘다 너를 위한 거야’라면서 다독여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죠.”

효민 씨는 훈련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당시 어머니는 피멍이 든 다리를 보고, 피겨스케이팅이 부상이 잦은 운동이라, 얼음 위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들이라고 생각했다.

효민 씨가 훈련장에 가기 싫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그저 아이가 힘들어서 떼쓰는 거라고 여겼다. 김 코치가 어머니에게 “애가 힘들면 포기할 수 있다. (어머니께서)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효민 씨는 어머니가 (학대 사실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다시 훈련장으로 보내는 거라고 오해했다. 인터뷰 내내 씩씩하게 말하려고 애쓰던 효민 씨의 두 눈이 빨개졌다.

2014년 캐나다 전지훈련. 화장실로 끌려가 아이패드로 뺨을 맞았다. 광대뼈 쪽에 큰 멍이 들었다. 그래도 여름합숙훈련 때보다 폭행 수위는 낮아졌다. 다른 아이가 자신보다 더 맞았을 거라고 말했다. 김 코치가 다른 아이를 화장실이나 라커룸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그 애는 샤워를 하고 오면 눈이 부어 있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지 못했죠.”

효민 씨 어머니는 캐나다 전지훈련 이후 학대 사실을 알았다. 다른 학부모의 귀뜸을 듣고, 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효민 씨는 자신이 당한 학대 사실을 전부 털어냈다. 효민 씨 어머니는 김 코치를 찾아가 따져물었다.

“김아영은 고개 숙이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모든 학대 행위를 시인하였고, ‘효민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이효민 어머니 사실확인서)

하지만 효민 씨는 김 코치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다른 코치 팀으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친분 있는 코치끼리 선수를 주고 받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불문율(?)에 한 번 가로막혔다. 고연서 씨도 그랬듯이.

우여곡절 끝에 효민 씨는 새로운 코치를 찾아 김 코치 팀을 떠났다. 이후 1년 남짓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뒀다.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효민 씨가 김 코치를 직접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증거자료도 별로 없고,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처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온몸에 피멍이 들어 변기에도 못 앉았거든요.”

그저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고연서 씨가 김 코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3년 만에 효민 씨는 학대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빈 종이에 어린 시절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충격적이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노력했어요.”

효민 씨에게 물었다. 김 코치에게 사과받고 싶냐고.

“김아영 코치가 사과한다면 기꺼이 받겠지만, 벌은 받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꿈을 품었던 열 살의 효민. 하지만 그는 지금 피겨스케이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만약 학대의 기억이 없었다면, 효민 씨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둔 뒤, 효민 씨는 딱 한 번 빙상장에 갔다. 친구들과 어울려 우연히 간 빙상장. 날이 짧은 아이스하키용 스케이트를 빌려 신고 얼음 위를 달렸다. 오랜만에 코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공기.

효민 씨는 아직도 어린 시절 신던 피겨용 스케이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제 너무 작아져서 신을 수도 없지만. 가끔 효민 씨는 피겨스케이팅화를 신고 얼음 위를 미끄러지던 그 느낌이 그리다고 했다.

“피겨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현재 고연서 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효민 씨는 김 코치의 학대 사실을 쓴 ‘사실확인서’와 ‘엄벌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은 김 코치에게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2개월간 대구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상담과 교육을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김아영 코치에게 지난 18일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지난 22일 그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날 김 코치는 문자메시지로, “출산 후 회복 중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빙상경기연맹은 김 코치에 대한 징계 절차를 8개월째 보류 중이다. 지난 18일 연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대 땀 그릴 수도" 성폭행 가해자 두둔...스포츠공정위 회의록 '충격'

JTBC 배승주 기자

2025.08.26.16:12

사진=철인 3종 성폭행 가해자 두둔에 대한 영상 보도 캡처(JTBC)

"10대 때는 그릴 수도 있다"

철인3종 중학생 대표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의혹을 조사했던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한 위원이 가해 선배의 불법 촬영 행위를 두둔하듯 말한 겁니다.

또다른 회의록입니다.

이번엔 한 위원이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A양/피해학생 :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해 선배 방에 스스로 들어갔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결국 남자 숙소에 들어갔단 이유로 출전정지 3개월이란 황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철인3종 협회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이 영향을 끼쳤단 지적입니다. 협회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 여중생의 과거 행실을 문제 삼았던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철인3종협회 관계자 : 이 학생의 행실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여중생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연락이 끊기는 등 철저히 고립당했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A양 어머니 : 둘이서 저질러 놓고 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박혀 있구나...]

협회가 결정적 증거인 가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7개월째 수사가 답보 상태인 경찰은 도리어 피해 여중생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04

문체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조치 추진

한국일보 강은영 기자

2025.08.28. 오후 6:29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04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 비밀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도록 돕는다. 최휘영 문체부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 K7 대회 경기 중 나온 후두부 가격… 폭력으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 ‘빨간불’

세계비즈니스스포츠월드 권영준 기자

2025-08-27 12:26:51

사진=(뉴시스)

한국 풀뿌리 체육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어 논란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학교 체육 현장에서 잇달아 폭력 사건이 터졌다. 주로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가했다. 지난 6월 경주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는 지도자가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 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앞서 대구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학생 선수의 입안에 가위를 집어넣고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학 농구 리그에서는 경기 중 선수가 선수를 구타하는 일도 발생했다. 골밑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더 큰 문제는 폭행 이후다. 주먹을 휘두른 후 억울하다는 듯 심판을 향해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을 했다.

이러한 장면은 아마추어 무대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25 원주치악배 전국 농구대회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왔다. 이번에도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으로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심판에게 자신의 폭력이 정당하다는 듯한 호소를 하는 장면이 비쳤다. 이후 해당 동호회는 폭력을 가한 선수를 퇴출했고, 원주시농구협회 역시 주관대회 영구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동호회를 옮기고, 원주시농구협회 외 주최 대회는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다. 폭력을 가한 선수는 대학까지 선수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판에서도 발생했다. 최근 서울시민리그에서 경기 중 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후두부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폭력을 가한 선수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팀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서울시민리그는 엄연히 대한축구협회(KFA) 산하 아마추어 리그다. 대한축구협회가 생활축구 전국연합회와 통합되면서 전체적인 승강제를 정비하면서 5~7부간 승강제가 구축돼 있다. 물론 대회 자체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축구협회가 운영하지만, 공식적인 대회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태를 넘어 선수간의 폭력이 이뤄지고 있다. 엘리트, 아마추어 가리지 않는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대부분의 경기가 영상으로 남거나, 생중계되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가해 선수들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항의하거나 자신의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징계도 마찬가지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보인다. 팀이나 동호회를 옮기거나, 리그를 바꾸면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다. 지도자 역시 자격 징계를 내리지만, 기간이 끝나면 복귀가 가능하다. 상처받은 선수의 치유도 뒷전이다.

폭력이 체육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